



따뜻하게… 섹시하게… 멋스럽게…

올 겨울 난 '부츠 멋쟁이'

기운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백화점, 마트에서 동네 신발점포까지 부츠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고대부터 패션, 방한, 방수, 스포츠, 안전 등을 위해 애용됐던 부츠는, 19세기 중엽까지는 남성의 전유물이었으나 겨울철 여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패션아이템이 됐다. 광주신세계,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 등 광주지역 백화점 3사를 중심으로 최신 유행하는 부츠, 부츠의 종류, 부츠 제대로 신는 법, 부츠 관리법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어려운 부츠 이름은 어떻게?=부츠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부티 부츠로 일명 구두형 부츠로 발등을 덮는 정도이며, 정강이 뼈를 덮는 것이 앵글 부츠이다. 통부츠는 무릎 높이, 하프 부츠는 앵글 부츠와 통부츠의 사이, 즉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말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싸이하이(sigh-high) 부츠는 무릎 위로 올라온다. 싸이하이 부츠의 경우 다리 길이에 따라 70cm까지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라이딩 부츠는 승마용 부츠와 닮은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부츠를 말한다.

소재에 따른 부츠의 이름도 다양하다. 니트 부츠나 패딩부츠, 양털부츠는 소재를 이름으로 했으며, 부츠를 털로 장식하는 것이 퍼 트리밍 부츠다. 이 외에도 장식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츠의 이름은 수시로 바뀐다.

◇지난해에 비해 30% 매출 증대 '부츠의 봄'=광주 신세계는 올 겨울은 복고풍과 이국적인 느낌을 가미한 빈티지 스타일의 부츠가 유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강한 여성상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올해는 여전사 이미지를 드러내는 패션아이템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허벅지를 감싸는 '사이하이부츠'인데, 일반적인 통부츠의 길이를 초과하고,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가죽으로 감싸 올려 강한 여전사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종아리 부분은 스키니 진처럼 다리에 달라붙고, 허벅지 부분은 움직이기 편

하기 위해 단추나 끈으로 제작되는 것이 잘 팔리고 있다. 빈티지의 인기는 다양하게 변조된 라이딩 부츠로 이어질 예정이다. 라이딩 부츠는 낮은 굽과 여유 있는 팟, 볼륨감이 느껴지는 도톰한 모양의 정통적인 스타일이지만 올 겨울에는 가죽 지퍼를 달아 가느다란 라인을 드러내는 부츠, 다양한 장식이 들어간 라이딩 부츠까지 다양하게 변형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패딩부츠와 '퍼 트리밍' 제품, 부티 부츠 등이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색상은 브라운 계열이 인기다. 광택이 느껴지는 브리운과 거칠고 색이 바랜듯한 브라운 등 다양하게 변조된 브라운 색의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장식은 가는 디자인에 포인트를 주는 정도가 여성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18일부터 크리스마스 부츠 대전을 열고 있는 현대백화점 광주점에서는 올해 인기 있는 아이템으로 앵글 부츠와 통부츠 사이 하프 부츠를 거론했다. 가격은 대략 10~20만원 선이 주류를 이룬다. 최근 각 백화점들의 부츠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약 30%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부츠 잘 신는 법=허벅지가 앓고 종아리가 두껍다면 무릎 바로 아래까지 오는 통부츠가 좋다. 부츠 끝 부분이 V자 형태로 잘린 제품도 다리가 한결 날씬해 보인다. 다리가 전체적으로 굵을 경우에는 신었을 때 다리에 불지 않고 약간 여유가 있는 부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져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부츠도 괜찮다.

다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휘었다면 다리에 꼭 붙는 부츠나 다리의 노출이 심한 제품은 피하고, 발목부터



광주지역 백화점업계의 부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급증하고 있다.

종아리까지 일자로 뻗어 있는 라이딩 부츠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부츠 관리법=통부츠는 습기 때문에 가죽이나 스웨이드 재질의 변형이 올뿐만 아니라 부츠 모양이 고정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면 가죽에 흠이 생기기 쉽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문지를 말아 부츠에 끼는 것이다. 습기 제거뿐만 아니라 모양도 쉽게 고정할 수 있다. 원두커피 찌꺼기와 녹차 티백을 함께 넣어 두면 밤새 재거에 도움이 된다. 흔히 앵글 부츠와 부티 슈즈는 통 부츠에 비해 통풍이 잘 된다는 착각으로 실내에서도 장시간 신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신발 속 습기로 인해 가죽 염료가 배어나오면서 낭패를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벨에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거나 신발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하루쯤 말려두는 것이 좋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크리스마스 파티용품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최근 3년 전구폭발 등 157건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파티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크리스마스 장식품, 양초, 풍선 등 파티용품 관련사고가 157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크리스마스 장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모두 14건으로 조명기구의 전구 폭발과 갑진 등의 유형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2월엔 한 3세 유아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만지다가 감전되면서 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초와 풍선 등 파티용품과 관련된 안전사고(14건)의 경우엔 화상과 같은 안전사고가 많았다.

특히 최근 젊은층에서 인기가 있는 장난감 꽂불의 경우 갑작스런 폭발로 화상을 입으키는 사례가 38건 발생했고, 불통 등이 눈에 들어가 안구가 손상되는 사례도 32건이나 됐다. 풍선을 불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눈에 손상(20건, 74.1%)을 입거나 풍선 조각을 삼킨 사례(3건)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크리스마스트리의 경우 취침 전이나 외출전에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영·유아가 전구 등 장식품을 입에 넣거나 만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어린이가 혼자서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불을 붙이지 않도록 하고, 점화전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신안 천일염' 소포장 신제품 출시

농협목포신안지부 1, 3, 5, 10kg들이

농협 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는 최근 1, 3, 5, 10kg들이 소포장 신제품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

'농협 신안 천일염' 브랜드로 출시한 이 천일염은 알갱이가 굽고 우윳빛이 나며, 80~85%의 저염도 소금으로 짠맛이 달하고 담백하다. 김치, 짓갈, 장류 등 발효 식품에 가장 좋은 맛을 내며, 프랑스 계란도 소금보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천연 미네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 천일염은 연말연시 선물용과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제격이며, 지난 3일 전국농협 하나로 마트와 유통센터, 하나로클럽과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박종수 지부장은 "소포장 신안 천일염은 소비자에게 고급화된 정품만을 공급함으로써 안심하고 사계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년을 '천일염 연합사업 정착과 판매 확대의 해'로 정하고 비축 수매와 마케팅, 산지유통센터 설치 운영, 최고급 상품 개발 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주소장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2010년 국가직 9급공무원 시험 4월 10일 / 국가직 7급공무원 시험 7월 24일
전남지방직 9급 5월 22일㈫ / 전남지방직 7급 10월 9일㈫

압도적 1위 한빛!

7·9급 공무원 합격설명회

일시 12월 28일(월) 14:30 ~ 17:55

알고 시작하면 빠르다!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

7·9급 종합반 2개월 완성

학원선팩이 합격을 결정했다

한빛최고의 합격시스템

전국최강의 강사진, 최고의 시설에서

성실한 수강생들 원리가 있습니다.

= 2012년까지 소방공무원 8,000명 중원예정 =

리모델링 시설장관 충남 소방체육부평화도립

소방직 전문 학원 소방체육총경기 무료체험

개강 1월 4일
종합/단과반
(전직종 2개월 완성)

최대합격의
첫걸음을

한빛고시학원

자매학원 김영편입학원(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227-8088), 한빛경찰학원(북구청 앞 062-262-3553)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